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623장 다같이

1.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2.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요한복음 11:1-8 인도자

설 교 “이들을 더 유하시고”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헌신과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2. 전도통합예배 때에 전도대상자들이 초청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3. 세상의 분열과 미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들을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 11:1-8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 가운데 7가지만 골라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결혼이고 마지막이 장례식이다. 사실 복음서들에는 세 번의 소생 기사가 나오는데, 주인공은 소녀, 청년, 장년이다. 나사로 소생 기적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부터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 준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도 소용없고, 오직 믿음만 필요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다. ▶ 나사로 사건은 시간과 장소와 인물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나사로가 위독한데, 그는 베다니에 살고 있으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집에서 환대를 받으셨던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이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에 들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급히 오시라고 전갈을 보냈다. 예수님은 전갈을 받으신 다음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셨다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다. 제자들도 가는 것을 꺼렸다. 결국 이들을 지체하는 중에 나사로는 죽어 장사를 지냈다. 예수님은 사람의 시간이나 요구에 맞추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움직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 이것이 최상이며 최선이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 줌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죽음 이전에만 유효한 줄 알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이 손을 쓰지 못하는 시간은 없다. ▶ 조문객들보다도 늦게 예수님이 그곳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마중을 나왔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아쉬움과 섭섭함이 서려 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피력했다. 물론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였지만, 마르다의 믿음은 내세의 신앙이지, 현재의 신앙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 대한 해답이라고 선언하셨다. 이에 대해 마르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 마리아까지 만난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가셨다.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돌이 막고 있었다. 생명과 죽음 사이를 나누는 돌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 막고 있는 돌(불신앙)을 옮겨 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문을 열어야 한다. 예수님은 선행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41절).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 말씀으로 살리셨다. 예수님이 사흘을 기다렸다 오신 것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세마포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다. 생명이 자유를 얻어야 온전한 삶이 된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내심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의 예언적 표적을 행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다.